

ASEAN+3국, 신·재생에너지개발 위해 뭉쳤다
- 한국 중심 포럼 창설 ... 개발 적극 나선다 -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비롯한 ASEAN(아세안) 10 개국이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창설했다.

산업자원부는 10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중국을 제외한 12개국, 7개 기관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갖고 이같은 협력 체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만장일치로 의장국에 선출됨으로써 ASEAN+3 역내 국가들에 대한 본격적인 리더십을 획득하게 됐고, 아시아지역에선 일본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참여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관련 각국의 정책 및 성공사례 발표 역내의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 기술 협력방안 등의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역내 국가들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존량이 풍부한 바이오 분야가 집중 논의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구체적인 국제공동연구와 투자 프로그램을 마련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지난해 8월 태국에서 개최된 '제1차 SOME+3 EPGG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제안으로 구성돼 이번에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신도시 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의무화

새로 조성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 및 김포신도시 등의 주요 건축물에는 반드시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신도시를 자원절약형으로 개발키로 하고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제2기 신도시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10월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신도시 시범단지에 들어서는 대형 상업시설 등 각종 건축물에 태양열 집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건물 옥상은 녹화를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신도시

시범단지에 재생에너지(태양열·풍력·연료전지·수소발전·조력발전 등) 보급비율을 전체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도시 내에는 폐기물소각장도 입지하게 되는데 폐기물 소각후 발생하는 폐열은 자체 난방과 공중사우나 등에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도시의 주요 바람 방향과 평행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바람 길에는 녹지축을 30~50m 정도 확보함으로써 이산화탄소(CO2)를 줄이고 열섬현상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북 새만금지구와 같이 바람 에너지의 부존량이 크고 풍속 및 풍향변동이 적은 지역에는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빗물과 중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빗물 유출량이 많은 차도 주변에 일정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자가용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많이 건설키로 했다.

한국하니웰, 500만불 계획제어설비 수주
- 가스공 평택 LNG터미널 제2공장 -

한국하니웰이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평택 LNG터미널 제2공장에 대한 500만불 규모의 플랜트제어시스템 설비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하니웰은 LNG시장에서 리더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00년 통영 LNG터미널 수주 이후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가스공사로부터 시스템의 우수성 및 숙련된 엔지니어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국내 LNG터미널 시장은 주로 외국계 대형 설비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하니웰이 많은 경쟁사들을 제치고 최종 시스템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은 하니웰이 보유한 솔루션만으로 모든 설비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시스템 성능대비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으며 국내 DCS시장의 마켓리더로서의 높은 인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니웰이 이번에 공급하게 되는 주요 시스템은 분산

제어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방재설비시스템, 공장정보시스템, 가상운전시스템이다. 이로써 하니웰은 현장계기에서부터 DCS 상위 기종에 이르는 도탈 플랜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업체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게 됐다.

하니웰은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스공사와 기술협력을 유지하고 통영 LNG터미널의 지속적인 확장 프로젝트와 이번 평택의 확장공사에서 가장 우수한 운전시스템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가스공, 공사대금 전액 현금 지급

- 10월 4일부터 공사, 용역, 자재대금 지급시 -

한국가스공사(사장 오강현)가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해 공사, 용역, 자재대금 지급시 전액 현금을 지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깨끗한 에너지,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10월 4일부터 그동안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에 한하여 공사, 용역, 자재대금 지급시 현금과 어음을 각각 50%씩 지급하던 것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윤리경영의 선도기업으로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협력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를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1월 계약담당자 전원에게 청렴계약 준수서약서를 징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도 청렴계약이행서를 작성하게 하여 서로 교환하는 등의 '청렴계약제'를 도입, 적극 추진해 공사, 용역, 구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이끌어내고 있다.

린나이코리아, 8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 능률협회컨설팅 선정, "A/S는 기본 B/S에 주력" -

가스기구 전문업체인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 www.rinnai.co.kr)는 10월 7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선정하는 '2004년 고객만족도 우수기업'에서 가정용 보일러 부문에서 고객만족도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린나이코리아는 가정용 보일러

부문 8년 연속 고객만족 1위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는 한국 각 산업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산업의 질적 성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조사대상 산업은 소비재 제조업, 내구재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등 110개 산업이며 1만 2,431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면접에 의해 선정된다.

남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바른 길을 가는 경영을 뜻하는 '정리경영(情理經營)'은 린나이코리아의 기업이념으로 고객감동 우선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영이념은 '소비자는 우리의 은인'과 '우리는 형제자매'로 이어지며 이는 밖으로는 고객만족 우선주의로 안으로는 인화의 기업문화로 구체화된다.

린나이는 보일러 업계에서 유일하게 대리점 서비스 체계가 아닌 본사 직영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 출장서비스와 '무한책임'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전국 39개 고객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총 500여명이 365일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일러를 사용하는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 고객을 방문해 린나이 제품을 종합 점검해주는 B/S도 실시하고 있다. 또 10월부터 5개월간 진행되는 '동절기 24시간 특별 서비스'와 공동주택을 방문해 연료절감 방법 및 난방기구 사용법을 교육하는 '에너지 경제 교실', 서비스 이후 A/S의 품질과 친절도·만족도를 점검하는 '해피콜(Happy Call)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해복구지원팀, 공휴일이나 야간에 출동하는 예약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센터 등 전방위적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고객만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린나이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이 마음대로 A/S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 서비스, 가스안전교육, 고객 접점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다.

린나이코리아는 우수한 기술력의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한편 고객만족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 받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